

대학-지역 동반성장 국공립대 역할은?

전국 국공립대 총장협의회 정기총회... 글로벌대학 30·RISE 정책 등 논의 코스리 관리·운영비 국고 지원, 국립대학 적립금 관련 예산과목 신설도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8일 국제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제2차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전북대학교를 비롯

한 전국 국·공립 40개 대학 총장 교육부 및 한국대학협의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국·공립대학교 총장단은 이날 '대

학교 역할'이라는 주제로 교육부와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글로벌대학 30 사업, 지역혁신 중심대학지원 체계(RISE) 등의 정책에 대한 국·공립대학교의 역할과 교육부 지원에 대

한 다양한 논의 및 건의 등이 이어졌다. 특히 회의를 통해 △초등 교원임용 기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편입학 허용 △코스리 관리·운영비 국고 지원 △외국인 유학생 재정보장 개선 방안 △국립대학 적립금 관련 예산과목 신설 등을 논의했다.

양오봉 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 위기는 지역 소멸 등 지역의 위기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기 때문에 지역 혁신을 주도하는 방향으로의 대학 개혁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하다"며 "오늘 허심탄회한 소통과 심도 있는 논의를 바탕으로 지방대학과 지역사회가 모두 함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모수가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국 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 이진숙 회장(충남대 총장)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국 국·공립대학교는 지속적인 협의회를 통한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대학 개혁을 선도하고, 교육의 공공성, 책무성을 지키기 위한 혁신의 길에 동참하고 있다"며 "이번 협의회에서 대학의 과감한 혁신, 미래지향적인 대전환을 위한 생생한 목소리를 나누는 동시에 협력 및 상생의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됐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학교는 8일 국제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제2차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북대-일본 미요홀딩스, "학생 취업 협력망 구축할 것"

학생 해외취업 협력 간담회

전북대학교 취업지원과가 일본 오사카의 중요 기업 중 하나인 (주)미요홀딩스(대표 스즈키 치즈코)와 학생 취업을 위해 긴밀한 협력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주)미요홀딩스 스즈키 치즈코 대표와 임선미 상무는 최근 전북대를 방문해 황지욱 부처장을 비롯한 취업 담당 관계자 및 고영란 교수(일본학과) 등과 학생 해외 취업 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미요홀딩스는 2004년 일본 오사카에 설립된 기업으로, 건설업과 부동산업으로 성공기도를 달리며 유료 노인휴



과 장애복지사업 등 사회복지 분야로 사업을 확장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황지욱 취업지원부처장의 인연으로 그간 전북대와 여러 분야에서 협업을 이어왔으며, 이번에 본격적으로 전북대 학생의 일본 취업 지원을 위한 세부 협의에 나서게 됐다. 이번 간담회에서 미요홀딩스 스즈키 치즈코 대표는 대한민국 내에서의 전북대의 위상과 학생들의 역할을 매우

높이 평가하며, 전북대 학생들이 미요홀딩스에 적극적으로 채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특히 전북대 학생들이 이 기업 외에도 일본의 다른 업종으로 취업을 원한다면 관련 거처와 적극적인 연계를 지원하고, 전북대 학생들이 일본 취업 시 미요홀딩스가 운영하는 기숙사도 제공하기로 했다.

스즈키 치즈코 대표는 "해외 취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취업을 했을 때의 실무 능력이기 때문에 일본인과 동등한 급여를 받으려면 언어와 업무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며 "일본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전북대 학생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일본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주비전대, 일본 미요홀딩스와 글로벌 산학협력·취업지원 간담회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직무대행 우병훈)는 지난 5일 일본 기업 미요홀딩스(주) 및 국내 기업 애로우잉글리쉬(주)와 글로벌 산학협력 및 취업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미요홀딩스(주) 스즈키 치즈코 사장, 임선미 상무, 애로우잉글리쉬(주) 백인석 부사장, 전주비전대학교 우병훈 총장 직무대행, 이근상 산학협력단장, 유세영 산업기술연구소 프로젝트 담당(일본어 통시통역) 등 관계자 14명이 참석했다.



미요홀딩스(주)는 일본 오사카에 기반을 둔 요양 복지, 식품, 건축 부동산, 컨설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기업이다.

우병훈 총장 직무대행은 "대학에 글로벌 혁신 인재 양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학생들에게 다양한 국

제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이 필요하다"며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점차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요홀딩스(주) 스즈키 사장은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해외 현장학습, 인턴십 다양한 교류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본인의 적성에 맞는 일을 찾을 수 있는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취업까지 성공할 수 있는 국제교류 프로그램이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호원대, 주한 베트남 대사관과 간담회 | 외국인 학생 지원 의견 수렴

호원대학교 입학홍보처 다문화융합지원센터는 지난 7일 본교를 찾은 주한 베트남 대사관(대사 Nguyen Vu Tung)과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강희성 총장, 정희봉 부총장, 신상열 입학홍보처장, 이정현 국제교류센터장, 김지연 다문화융합지원센터장과 웨비넷이잉 주한 베트남 부대사, 레반홍 1등 서기관, 파티 탄튀 1등 서기관, 마이지에우튀 2등 서기관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호원대학교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학력 지원 생활 취업 등의 다양한 지원현황을 설명했으며, 학생들의 생활, 학업, 취업 등에 관한 애로 사항을 파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웨비넷이잉 주한 베트남 부대사는 "호원대학교 강희성 총장님을 비롯한 전 구성원들이 베트



호원대학교 입학홍보처 다문화융합지원센터는 지난 7일 본교를 찾은 주한 베트남 대사관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남 학생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 미래의 취·창업에 대해 노력해 준 부분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호원대 외국인 학생 지원사업은 다문화 대학생 지원사업과 유학생 지원사업으로 구분돼 있으며, 각 지원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호원대학교에는 약 900여 명의 유학생들이 학업에 정진중인 가운데 베트남 유학생이 631명으로 가장 많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중국인문학회

춘계학술대회 공동 개최

중국인문학 당면 과제 등 논의

7개 분과 현장·온라인 발표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2023년 중국인문학회 춘계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10일 군산대학교에서 열리는 이 학술대회는 '디지털 인문교육과 중국인문학의 방향'을 주제로 기획됐다.

이는 격변하는 대학 교육의 현상과 고도의 디지털 기술의 발전을 토대로 중국인문학이 당면한 과제 및 나아갈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중국인문학회 주관으로 전북대 중어중문학과, 전북대 중국·아시아연구소, 군산대 중어중문학과, 전남대 중어중문학과, 전남대 중국인문연구소, 호남대 공자학원, 제주대 상무공자학원 등이 공동 주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한국과 중국, 대만 등 3개국 90여 명의 학자가 4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하고 토론한다.

제부에서 단국대 안희진 명예교수의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제2부는 총 7개 분과로 현장 발표와 온라인 발표가 동시에 진행된다.

진명호전북대 중어중문학과 중국인문학회 회장은 "중국인문학회는 중국 연구에 있어 언어 및 문화 연구뿐만 아니라, 디지털을 활용한 기타 중국 모든 영역에 걸친 중국학을 다루고 있다"며 "연구 및 교육을 확대해 한국과 중국 간의 국제 교류의 실질적이고 효과 있는 창명으로서 역할을 다하며, 학문 발전의 혁신을 주도할 것"이라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원광대 원불교 동아리 '백목련' 대학발전기금 100만원 기탁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원불교 동아리 백목련이 대학발전 기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8일 원광대에 따르면, 백목련은 지난 달 진행된 대학 축제 '2023 원광대동계'에서의 야자진 운영을 통해 발전기금을 마련했다.

이 동아리는 코로나 이후 법회·봉사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모색하던 중 구성원들 간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야자진에 참여했다.

또 운영 수익금을 대학발전 기금으로 기탁하기 위해 축제 기간 중 부스를 운영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전주대학교는 지난 7일 세계한인무역협회(World-OKTA) 싱가포르 지회 김중윤 지회장을 초청해 생활체육학과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Glo-Up 글로벌 마인드 셋업) 특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체육 전공자 글로벌 취업 독려

전주대, 세계한인무역협회 싱가포르 지회장 초청

생활체육학과 재학생 대상 'Glo-Up' 특강 진행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지난 7일 세계한인무역협회(World-OKTA) 싱가포르 지회 김중윤 지회장을 초청해 생활체육학과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Glo-Up(글로벌 마인드 셋업) 특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전주대의 Glo-Up 프로그램은 LINC 3.0 사업단에서 구축된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해외 각지에서 성공한 기업 대표들을 초청해 진행되는 학과 맞춤형 글로벌 마인드 셋업 강연으로, 전문성과 책임감으로 무장한 지역 인재들이 세계 각지로 뻗어나가며 지역 대학을 세계적 명문으로 만들어가는 발판이 되는 신화연계 혁신 프로그램이다.

이번 특강에 강연자로 나선 김중윤 지회장은 싱가포르에서 한국인

최초 태권도장인 '일도(一道) 태권도'의 설립자로 태권도 비즈니스 전문 회사인 ILDO PTE LTD 대표를 맡고 있다.

이번 특강에서는 체육 관련 전공자의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아시아지역 스포츠 비즈니스 운영 현황과 현장 경험 등을 중심으로 전주대 생활체육학과 학생들의 글로벌 취업을 독려했다.

전주대 LINC 3.0 사업단장단 김상진은 "학과 맞춤형 해외 취업 지원 프로그램인 Glo-Up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글로벌 역량을 갖춘 학생들이 세계 곳곳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돕고, 전주대가 글로벌 대학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서울 주요대학 입학전형 분석

도교육청, 내일 진학교사 대상 대입전형 전문가 집중 연수

'학생 선호' 경희대 등 서울지역 8개 대학 입학사정관 참여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오는 10일 전주 베스트웨스턴호텔에서 진학교사 70명을 대상으로 '대입전형 전문가 집중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전북지역 일반계고등학교 진학교사 중 학교당 1명씩 희망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학생들이 선호하는 서울지역 8개 대학(경희대·동국대·서강대·서울시립대·송실대·중앙대·한국외대·한양대) 입학사정관이 참여한다.

단순히 입학사정관의 설명을 듣는 기존 연수와 달리 이번 연수는 대학별로 모둠을 구성해 해당 대학의 대입전형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응답이 이뤄지도록 했다.

또한 참여 교사가 한 대학의 입학전형 분석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 4개 대학의 입학사정관과 만날 수 있도록 1시간보다 모둠을 바꿔서 토론이 진행된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올해 학생 선호

대학 입학사정관과 교사들의 만남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월 서울대를 시작으로 고려대, 건국대, 경희대, 동국대, 연세대, 인하대, 성균관대 등 수도권 대학들이 적어도 1번씩은 전북을 방문해 교사들을 만나거나 연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북지역 대학과의 만남도 준비돼 있다. 오는 17일 전북지역 주요 6개 대학 입시설명회를 시작으로 교사들의 진학지도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연수와 간담회가 6~7월 중점적으로 운영된다.

유효선 중등교육과장은 "고교학점제 전면 실시를 앞두고 각 대학의 전형에 조급식 변화가 예상되며, 이러한 변화를 미리 알기 위해서는 대학 관계자와의 만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우리 지역 선생님들이 전국 대학의 입학사정관들을 편하게 만나 진학지도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연수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교육현장 부패행위 신고해주세요'

도교육청, 집중신고기간 운영

공사관리·물품용역계약

학교운동부 운영 등 해당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오는 30일까지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부패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분야는 공사관리 △물품·용역계약 △학교운동부 운영 △방과후학교 운영 관련 기준·절차를 위반한 업무처리,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금품 등 요구·수수 등이 해당된다.

신고는 전북교육청 누리집 부패·공익신고센터(www.jbe.go.kr)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부패공익신고(www.cdan.go.kr)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전북교육청 대표전화로도 가능하다.

이홍열 감사관은 "이번 집중신고기간을 통해 부패행위가 근절되고, 건전한 신고문화 정착으로 더 청렴한 전북교육이 실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